광주·전남 400명 골프회원권 수십억 피해

서울 유사 회원권 업체 경영난에 문닫아…대표는 잠적

다단계 방식 모집…전국 수천명 피해 수백억 달할 듯

유사 골프회원권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광주·전남지역 회원 400여명이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피해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4일 유사 골프회원권 업체인 삼성회원권(에스골프) 회원들에 따르면 업체측은 회원들에게 '에스골프 판매 영업, 회원 입회, 골프장 그린피 지원·예약 접수 등 업무 일체를 당분간 중단한다'는 문자를 3일 발송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업체는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 김모씨는 지난달 28일 잠적한 상태다.

'에스골프'는 회원 가입을 통해 가입자들이 국내외 골프장을 정회원 대우를 받으며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에스골프측은 'V-VIP' 회원에 가입하면 4명이 주중과 주말 전국 골프장 300곳에서 연간 91회까지 정회원 대우를 받으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회원과 비회원 그린피 차액을 회원권 가격인 23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했다. 또 'VIP'는 4명이 연간 60회에 걸쳐 1540만원까지, '트윈'은 2명이 연간 29회 770만원까지 돌려받는다고 내세웠다. 회원권 이용은 2년간이다.

1억원이 넘는 정회원권의 20% 수준의 가격에 정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해 전국적으로 많은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기명 4인까지 이용할 수 있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는것이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회원 모집은 대부분 다단계 방식으로 이뤄졌다.

순천에서 사업을 하는 A(50)씨는 억대가 넘는 회원권이 부담스러웠는데 2310만원이면 정회원 대우로 골프를 즐길 수 있다고 지인이 권해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3개월만에 업체가 문을 닫고 말았다. 그동안 300여만원가량 회원권을 이용한 것을 감안하면 고스란히 2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A씨와 같이 피해를 본 회원이 광주·전남에서만 400여명에 이른다. 피해규모는 30억~5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는 수천명에 피해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골프 회원권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사로 있는 대표의 동생과 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조만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힘들게 들어간 대학 중도포기 수두룩

전남 작년 3367명…6.7%로 전국 2위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연간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상위권 대학 간판을 따기 위해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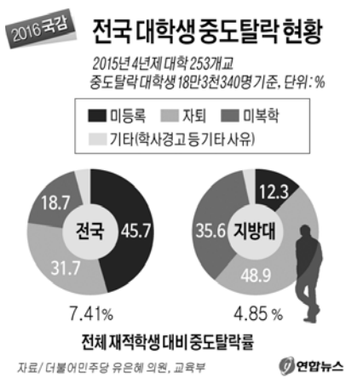
좋은 일자리가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지역 인재가 몰리면서 지역대학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15년 전국 대학생 중도탈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재수나 편입학 등을 위해 자퇴,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대학을 중도에 그만둔 학생 수는 18만3340명이었다.

전국 대학생 247만명의 7.4% 수준이지만 지난해 수능 응시자가 63만118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능 응시자의 29.0%가 대학을 그만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내지 않아 제적된 미등록이 45.7%로 가장 많았고 자퇴 31.7%, 미복학 18.7%등의 순이었다. 학사경고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중도포기 학생 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들 학생의 상당수가



타 대학 편입 또는 재수, 유학, 가정환경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대학은 전체 재적 학생(4만9941명)의 6.74%(3367명)가 중도에 그만둬 중도탈락율이 서울(13%·10만5267명) 다음으로 많았다. 광주도 재적 학생(8만8862명)의 4.86%인 4320명이 중도탈락한 것으로 분류됐다. 지역 대학 고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결국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이 학문·취업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며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외주식 투자 꾀어 4억 가로챈 40대 구속

순천경찰은 증권사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투자자들에게 장외주식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증권사 전 차장 강모(4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장외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주식을 매입해 수익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투자자 8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출국해 스페인 등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귀국한 강씨는 피해자들을 피해 원룸 등에서 생활하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전국의 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치는 등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강씨를 통신추적 등을 통해 지난달 29일 화순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구청 주변 식당 이용 공무원들 "내 밥값은 내가 내야죠"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4일 낮 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밥값을 각자 계산하고 있다. 서구청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관공서 주변 상권을 살리고 법 취지를 살려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취지로 이날 '더치페이 캠페인'을 벌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법원 "야구단 게시판 모욕글 올린 회원 이용 제한 정당"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KIA 타이거즈 홈페이지 회원 A씨가 KIA 구단을 상대로 낸 회원이용제한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KIA 유료회원에 가입하고 홈페이지에 경기 관련 글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했다.

2015년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KIA 구단은 약관을 근거로 A씨의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5년간 재가입을 불허했다.

A씨는 약관이 포괄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주고받은 상대방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과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제재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구단 측은 A씨가 수차례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과 분쟁을 일으켰고, 검찰의 기소유예는 법적처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약관에 회원이용제한 종류, 적용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A씨가 이전에도 홈페이지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해 글쓰기 제한 및 강제탈퇴 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들어 구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자유가 있다"며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따라 재량권 범위에서 피고가 적법하게 취한 제재조치인 점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관·낙태 한센인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인당 위자료 2000만원으로

강제로 정관·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또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4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는 같은 사안 심리를 위해 직접 소록도를 방문하고 온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의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남녀 모두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제 정관 수술을 당한 피해자들에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 4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배상하라고 했다. /연합뉴스

백남기씨 유족, 부검영장 공개·사망진단서 변경 요구

시위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씨 유족들이 경찰의 부검영장 공개와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구했다.

백씨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측은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부검 영장 전문 공개를, 서울대병원에는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구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측은 "이행 조건이 부과된 부검 영장에 대해 유·무효 논란이 있고, 이행 조건에 대해서도 해석의 논란이 있어 유족들이 협의 여부를 결정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무엇을 협의할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부검 영장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부검 실시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단 공문 외에 다른 루트로도 접촉을 시도하겠다"며 "공문을 다시 보낼지 직접 접촉할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투쟁본부 측은 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 사망진단서가 작성 지침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담당 의사의 재량으로 작성할 수 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규탄하며 "지침에 위반된 것이라면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음료 납품 뒤 다시 빼돌려 재납품한 '양심불량 영업사원'

쌍나팔

○…음료 회사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음료를 납품 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빼돌린 후 재납품하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7)씨는 지난 8월 27일 낮 12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소재 이모(38)씨가 관리하는 창고에 들어가 최근 자신이 납품했던 헛개차 240개 들이 음료상자 4박스를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

○…납품받은 물품과 판매 실적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창고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의 범행은 탄로났는데, 붙잡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창고 안을 드나들어도 관심없기에 수레를 이용해 이미 납품했던 물건을 창고에서 들고나와 다음날 다시 납품하는 간 큰일을 벌이고 말았다"며 뒤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6963	1	북구 안산로57, 3층 303호 [오치동,명진티엔씨] 33.2000㎡	아파트	95,000,000 95,000,000	
	2	북구 안산로57, 4층 401호 [오치동,명진티엔씨] 33.2000㎡	아파트	97,000,000 97,000,000	
	3	북구 안산로57, 4층 402호 [오치동,명진티엔씨] 33.2000㎡	아파트	97,000,000 97,000,000	
	4	북구 안산로57, 5층 502호 [오치동,명진티엔씨] 33.2000㎡	아파트	97,000,000 97,000,000	
	5	북구 안산로57, 5층 503호 [오치동,명진티엔씨] 33.2000㎡	아파트	97,000,000 97,000,000	
2016타경 7218	1	나주시 예향로3793, 4층 406호 [이창동,나주사랑가] 48.7534㎡	아파트	122,000,000 122,000,000	
	2	나주시 예향로3793, 4층 408호 [이창동,나주사랑가] 48.7534㎡	아파트	122,000,000 122,000,000	
2016타경 10993	1	동구 운림동 583 102동 8층 802호 84.97㎡	아파트	191,000,000 191,000,000	
2016타경 62970	1	서구 염화로40번길20-1, 3동 13층 1306호 [화정동,태영아파트] 59.93㎡	아파트	106,000,000 106,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3377	1	서구 화정동 740-29 239㎡[[유]거두리지분13분의2] 제시외 가추 등 2.81㎡	대	34,148,880 34,148,8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서구 화운로155번길24-59[목록1과지분동일] 1층94.63㎡ 2층103.15㎡ 지하실14.52㎡	단독주택		
2016타경 4950	1	남구 사동 59 173㎡	대	193,794,000 193,794,000	일괄매각
		남구 천변좌로390번길 6-1 1층84.0㎡ 2층66.15㎡ 3층47.25㎡ 변소 0.9㎡	다가구주택		
2016타경 61069	1	서구 월드컵4강로146번길 9-10 1층108.89㎡ 2층48.24㎡ 지하실 5.94㎡ 부속건물 변소 1.62㎡ 제시외 보일러실 등 28.6㎡[제시외건물포함]	단독주택	48,032,720 48,032,720	지분매각,일괄매각.문용주지분119분의35.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서구 화정동 748-3 203.2㎡	대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9528	1	광산구 북산동 646-1 1425㎡[박종송지분1425분의1157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49,780,000 49,780,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6타경 62710	1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 산117-1 28207㎡	임야	132,572,900 132,572,900	
2016타경 62840	1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421 155㎡	전	5,114,500 5,114,500	일괄매각.목록1분묘소재,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420 453㎡	전		
		동소 425 357㎡	전		
[자동차,중기]					
2016타경 61878	1	사용본거지: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292-35 등록번호:53노7262 차명:SM5 연식:2007	자동차	6,000,000 6,000,000	보관장소:남구송암로124-3
[기타]					
2016타경 8372	1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822-2 222㎡	대	155,355,700 155,355,7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동소 823 234㎡	대		
		나주시 산포면 내기1길 11 265.87㎡ 제시외 창고 등 69.2㎡	단독주택,창고시설		
2016타경 62840	2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44-12 36㎡[배응순지분6분의1전부]	도로	1,056,000 1,056,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10. 20.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10. 27. [목]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10. 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계수